

북스

Books

“인간은 침팬지의 먼 친척이고 바나나의 아주 먼 친척이다”

지상 최대의 쇼
리처드 도킨스 지음



“진화는 사실이다. 우리가 침팬지의 먼 친척이라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우리는 원숭이의 먼 친척이고, 땅돼지의 먼 친척이고, 바나나와 순무의 아주 먼 친척이다.”

“만들어진 신”을 통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논증을 펼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국 옥스퍼드대 뉴칼리지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신작 ‘지상 최대의 쇼’를 내놓았다.

그는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는 ‘이기적 유전자’(1976년 출간)부터 신의 존재는 인간의 망상일 뿐이라는 ‘만들어진 신’까지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사회 전반을 논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상 최대의 쇼’는 그 연장 선상에 있고, 또한 ‘만들어진 신’에 대한 진화론적 증거를 나열하고 있다.

제목 ‘지상 최대의 쇼’는 진화 그 자체를 말한다. 저자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간이 탄생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자는 진화란 “마을(세상)의 유일한 게임, 지상 최대의 쇼”라고 표현한다. 또 “우리 주위에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생명들이 가득하다”며 “이것은 신의 작품이 아닌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해 만들어진 지상 최대의 쇼”라고 말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개의 진화를 예로 든다. 요크셔테리어, 닥스훈트, 휘핏 등 개 품종의 다양화는 유전자풀(gene pool)의 조각으로 가능



남아메리카의 거미 원숭이는 나무에서 생활하기 위해 꼬리가 진화한 다섯 번째의 팔·다리를 사용한다. (김영사 제공)

했다. 그레고어 멘델의 이론에 따르면 부계와 모계 유전자는 2세에서 결합할 때 물감처럼 혼합되는 게 아니라 카드패처럼 섞인다.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는 등 유전자풀을 잘 다듬으면 개의 해부구조와 행동양식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쉽다는 말이다.

박테리아의 진화를 통해 인간 진화도 엿볼 수 있

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의 리처드 렌스키 연구팀은 지난 1988년 12종의 박테리아를 20년 동안 배양했다. 박테리아는 무성생식을 통해 하루 6, 7번의 세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20년은 4만5000세대를 지난 것과 같다.

인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만 년에 해당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12종 모두에서 선조보다 개선된 점이 발견됐으며, 종마다 다른 돌연변이 집합을 발전시켰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일어났다.

저자는 우리 몸에도 진화의 흔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관은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를 음경까지 전달하는 통로다. 원래 정관은 고환을 담은 음낭과 음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야 합리적일 텐데 실제로는 요관 위로 우회한다.

그는 “원래 고환이 콩팥 근처에 있었는데 진화 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로 내려왔다”며 “정관은 내려오는 도중에 운 나쁘게 요관에 걸려버렸다”고 설명한다.

진화의 놀라운 증거는 다양한 채소의 탄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브로콜리, 플라비, 케일, 방울양배추, 스프링그린,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는 사실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 잡초 비슷하게 생긴 야생 양배추 브라시아 올레라에에서 개량된 것들이다. 원예 학자들이 몇 세기에 걸친 육종의 결과 조상이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증거들을 통해 그는 “인간이 고작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늑대를 페니키스로, 야생 양배추를 플라플라위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야생 동식물의 무작위적이지 않은 생존이 수백만 년에 걸쳐 같은 일을 해내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나?”라며 경이롭고 찬란한 생명의 역사를 소개한다.

(김영사·2만5천원)
/오공북기자 kroh@kwangju.co.kr

삼국유사 둘러싼 한·일 숨은 이야기

일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길 위의 삼국유사’ 등 꾸준히 삼국유사 관련 책을 써온 고운기(연세대학교학원연구원 연구교수)씨가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을 펴냈다.



‘스토리텔링 삼국유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책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아스의 장서 목록에 올라 있는 ‘삼국유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일 두 나라의 숨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삼국유사’가 양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추적한다.

앞으로 ‘이 이야기꾼의 한 생애’ ‘노래의 탄생’ 등 2권이 더 나올 예정이다.

(현암사·1만3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너는 모른다 정이현 지음



소설가 정이현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칙칙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로 주목을 받았다.

현대 도시인의 모습을 특색 뛰는 문체와 스토리로 잘 잡아낸 그녀는 작품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만만찮은 이야기 솜씨를 보여줬었다.

정이현이 을 조부터 인터넷에 연재됐던 작품을 엮어 펴낸 신작 ‘너는 모른다’는 전작과는 스타일이 다른 미스터리물이다.

소통 무관심한 가족에 일어난 잇따른 미스터리

작품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한 가족이다. 서울의 빌라촌에 살고 있는 김상호·진옥영 부부, 바이올린 영재인 초등학생 4학년짜리 딸 유지, 김상호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혜성, 그리고 학교 앞 원룸에서 살고 있는 혜성의 친누나 은성.

다섯명의 가족은 모두 자신의 율타리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다. 서로에게 비밀을 감추고 있고, 그 비밀을 알고지고 하지 않는다. 소통에 무관심한 가족들의 모습이다.

눈발이 내리는 어느날 모두들 제 할일에 바쁘고, 유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자 가족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어느날 한강에 떠오른 한 남자의 변사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은 500페이지 가까운 두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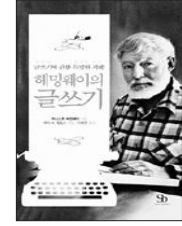
속도감 있게 읽힌다. 각 장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총하게 잘 짜여진 스토리 덕에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며 살아 숨쉬는다.

김상호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화교 출신 진옥영은 왜 대만에 드나드는 걸까, 유지가 사라진 그날 혜성은 무슨 일을 한 걸까, 그 남자의 시체는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각 인물이 얽히면서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읽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힘이 딸리기는 하지만,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스토리와 글쓰기 덕에 한 번 잡으면 쉽게 놓기 어려운 책이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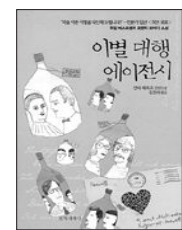
▲헤밍웨이의 글쓰기=‘무기여 잘 있거라’의 작가 헤밍웨이가 밝히는 글쓰기의 지혜를 다룬 책. 작가들에게 주는 글쓰기 기술과 작업 습관, 훈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지혜와 워트, 유머와 통찰, 그리고 작가는 직업 자체의 윤리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스마트 비즈니스·9천800원)



▲백두대간 민속기행 1·2=사라져 가는 옛 삶의 기록을 위해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MBC ‘우리소리를 찾아서’ ‘민속기행’의 최상일 PD가 쓴 산간 민속 답사서. 백두대간 자락 300개 마을을 답사하면서 110개 마을의 노인들을 만나 산촌의 생업 관행, 생활문화, 민간 신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MBC 프로덕션·각권 1만8천원)



▲착한대학=‘경찰서여 안녕’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중평이 쓴 연작소설. 타고난 이야기꾼, 풍자의 달인이라는 평답게 18살 고등학생들의 그칠 줄 모르는 수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적 인 호기심 등 종합무진 이어진다. ‘참을 수 없는 무거움’, ‘상의 실현 또는 시련’ 등 네개의 챕터에 모두 14편의 글이 실려 있다. (문학과지식사·8천원)



▲이별대행 에이전시=독일 작가 안네 헤르츠의 장편소설로 마을 어른 이별을 대신 해주는 ‘작은 위로’라는 전문업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소설이다. 업체를 운영하는 시몬과 올리아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문학세계사·1만3천원)



▲호모엔젤러스=전 문화부 장관 이영희, 가수 후서범과 박상민, 변호사 한기찬, 시민운동가 박원순, 푸르덴셜생명 수병욱 부사장 등 삶의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경험담을 담고 있다. 책 제목은 나누고 살 줄 아는 멋진 인간들에게 붙여지는 신인류라는 뜻으로 만든 이름이다. (네오휴먼·1만3천원)



▲컨슈머 키드=영국 소비자 운동단체인 컨슈머포커스 회장을 맡고 있는 에드 메이오가 쓴 책으로 영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소비에 탐닉하는지, 기업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지 실체를 들여다본 생생한 보고서다. 현명한 소비자로서 키우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실었다. (책보세·1만5천원)



▲불혹, 동화에 흑하다=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운수씨가 고전동화를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호랑이와 꽃간’, ‘흑부리 영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도깨비 감투’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가 연암의 소설, 마그리트의 그림, 그리스·로마 신화, 성서 등 서고급의 고전과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이승·1만3천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목에 관계 없이 모든 실사한 후 수익성 있는 무방한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사실/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월가	유형주택 011-002-1005	공장/토지	특정시설 010-5300-0443
소매지 신영리 대146,2205 성남리 대32,1167 남동 대121,21128 남동 대219,22838 남동 대147,242789 남동 대171,23810 남동 대55,21553 우산동 대74,21115 서동동 대295,22519 신영리 대187,21855 신영리 대187,21850 신영리 대74,23643 신영리 대73,22326 기동동 대155,22308 남동동 대292,2820	대지면적 2794㎡ 2194㎡ 1394㎡ 8394㎡ 518㎡ 4897㎡ 1794㎡ 5594㎡ 5494㎡ 4094㎡ 1394㎡ 4994㎡ 2994㎡ 2994㎡ 4994㎡	건물면적 1097㎡ 1497㎡ 4994㎡ 2894㎡ 118㎡ 8994㎡ 1294㎡ 1994㎡ 2994㎡ 1894㎡ 4994㎡ 3994㎡ 2994㎡ 2994㎡ 4994㎡	대지면적 1594㎡ 4994㎡ 4994㎡ 4994㎡ 14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대지면적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대지면적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분양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펠리스타워빌딩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의류아울렛,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가, 의류아울렛,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특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가, 영어,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옆 10×10×6m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중원대리점(35m,4호선) 3층상부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점 외환은행건물(제디퀀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점 외환은행건물(제디퀀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대인동삼일부동산
010-9618-3358, 955-0808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임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대운공인중개사
011-9618-3358, 955-0808

빌딩매매

- 토지 330평 건물 2300평 매매가 50억 보증금 5억 월 5200만원
- 토지 310평 건물 350평 매매가 28억 보증금 5억 월 1700만원
- 토지 160평 건물 650평 매매가 24억 보증금 8억 1000만원
- 토지 95평 건물 280평 매매가 12억 보증금 2억 월 700만원
- 토지 85평 건물 310평 매매가 150억 보증금 1200만원 월 800만

● 광주 전지역 ●
수의 상가건물 구입합니다 (대수자 대기중)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매해드립니다.

상가 ☎ 955-0808
전문 FAX 955-0308